

# “여수 세계적 관광 ‘핫플’로 거듭날 것”

## LOCAL

2025년 4월 4일 금요일

### 힐튼호텔·힐&테라스 콘도 등 대형 브랜드 건립 랜드마크급 디자인...“K-관광 대표 도시 급부상”

여수에 국내외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적 핫플로 떠올라 국내 관광 지형까지 바꾸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언급될 정도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중앙 최대 시설로 추진되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호남 최초 글로벌 최고급 브랜드호텔이 들어선다. 29층 307실 규모 5성급 호텔로, 설계는 국제공모로 진행된다. 랜드마크급 디자인을 반영한 건축물로 설계한 뒤 내년 4월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그랜드볼룸, 세미나실, 실내 수영장,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다.

특히 리조트와 빌라형 콘도 등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총 929실 규모의 숙박 시설이 건립된다.

화양복합관광단지(가 추진되는 여수 화양지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206m 규모의 인피니티 사계절 수영장을 갖춘 ‘힐&테라스 콘도’가 조성된다.

화양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6.43km<sup>2</sup> 부지에 골프장과 호텔, 콘도,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약 1조524억원이 투입된다.

핵심 시설이 될 힐&테라스 콘도는 지하 6층, 지상 10층에 274객실, 500명 수용 규모로, 컨벤션 등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사업 시행자인 HJ다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시설 설계와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했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입지 예정인 5성급 호텔 조감도.



화양복합관광단지 입지 예정인 ‘힐&테라스 콘도’ 조감도.



힐튼호텔 조감도·투시도.

학동에는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호텔이 지상 24층 179실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반블루윙스가 추진하고 있다.

국내 유명 호텔 체인이 언급되는 수정동 30번지(면적 3만1000m<sup>2</sup>) 일원에는 5성급 10층 규모의 호텔로, 운동시설(수영장)과 편의시설(전망데크), 특수시설(해양광장, 동굴광장) 등을 갖춘 예정이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으며, 실시계획과 건 축인허가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간 시가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에 공을 들였고, 여수가 K-관광을 대표하는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관련한 국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gwangnam.co.kr

### 순천 쌀 ‘나누우리’ 필리핀 수출길

지난해 이어 2년 연속...5t 규모 수출 상차식

순천시는 최근 해룡면에 위치한 순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순천의 대표 쌀 브랜드 ‘나누우리’의 필리핀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누우리의 필리핀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게 됐다.

상차식에는 순천농협 경제상임이사,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 수출협의회장,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 순천시에서 생산된 ‘Made in 순천’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수출될 순천 쌀 물량은 총 5t으로, 순천농협에서 가공된 쌀은 동

남아 수출전문업체인 ㈜장대에프앤비를 통해 필리핀 내 한인마트 3개 지점에 납품된다. 이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며, 올해 총 40t의 순천 쌀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나누우리 쌀의 동남아 수출은 농업인, 순천농협, ㈜장대에프앤비, 순천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누우리 쌀 국내 판매 활성화와 국의 수출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정흥군은 최근 어업회사법인 바다채소사업장에서 염장미역 중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 장성, 관광 프로젝트 본격 가동 리뷰 이벤트·반값 택시 운영

장성군이 준비한 ‘장성 방문의 해’ 관광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체전(4월 18~21일), 성장장성 락페스티벌(4월 19일), 전남장애인체전(4월 30일~5월 2일), கட동무 꽃길축제(5월 10~11일)가 이어지는 4~5월에는 ‘장성 방문의 달 이벤트’가 준비됐다.

가장 많은 참여가 예상되는 콘텐츠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다.

4~5월 장성지역 음식점, 커피숍, 숙박업소를 이용한 뒤 인증사진을 남기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쓴다.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에 방문해 영수증과 네이버 영수증 리뷰 화면을 보여주면 2만~7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차 없이 장성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반값 관광택시’도 운영한다. 3시간·5시간·8시간 코스로 구성됐으며 이용 요금의 50%를 장성군이 부담한다.

등산객이 축령산 편백숲 코스를 완주한 뒤 주차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료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명품숲 투어 어게인’도 주목된다.

김한중 군수는 “4~5월에는 양대 체전과 락 페스티벌, கட동무 꽃길축제를 비롯해 진원면 산동리 유채꽃축제, 북하면 산나물축제, 황룡강 뱃나드리축제도 풍성하게 열 계획이다”며 “솔솔한 재미와 혜택이 가득한 장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 담양 용면 추월산 벚꽃축제 내일 개최

담양 제10회 용면 추월산 벚꽃축제가 오는 5~6일 이틀간 담양군 용면 추월산 벚꽃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용면 청년회가 주최·주관해 추월산의 아름다운 벚꽃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축제는 난타 공연, 벚꽃쇼, 부채 만들기 체험·판매, 옴바루길 보물찾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지역 특산물인 용면 딸기와 쟈도 현

장에서 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5일 오후 2시 개막식에서는 봉산 외우농악보존회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 미스김과 송유나의 초청 공연, 주민 노래자랑, 담양연예인협회의 특별 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최고령 장수상’, ‘장수 부부상’, ‘4대 거주 화복상’, ‘다문화 모범상’ 등의 시상식도 진행된다. 담양=조성용 기자

### 장흥, 청정해역 ‘미역’ 중국 시장 공략

어업회사법인 바다채소서 염장미역 수출 선적식

장흥군은 최근 어업회사법인 바다채소(주) 사업장에서 염장미역 중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바다채소(주)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으로 건미역, 건다시마, 염장미역, 염장포시래기 등 지역 해조류를 가공·생산하고 있다.

2018년에 염장미역을 첫 수출하기 시작한 지금까지 꾸준히 수출을 이어온 결과, 수출이 연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물미역 수확시기를 감안해 지난달 초부터 오는 10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염장미역 2500여t을 ㈜진현과 아라푸드 수출업체를 통해 중국 칭다오시, 르저오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염장미역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해조류와 같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에 대한 수출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이미선 바다채소 대표는 “염장미역이 중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건미역 등 품목을 추가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군수는 “무산김과 미역을 비롯한 장흥군 해조류의 해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출 선적식에서 바다채소(주)는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